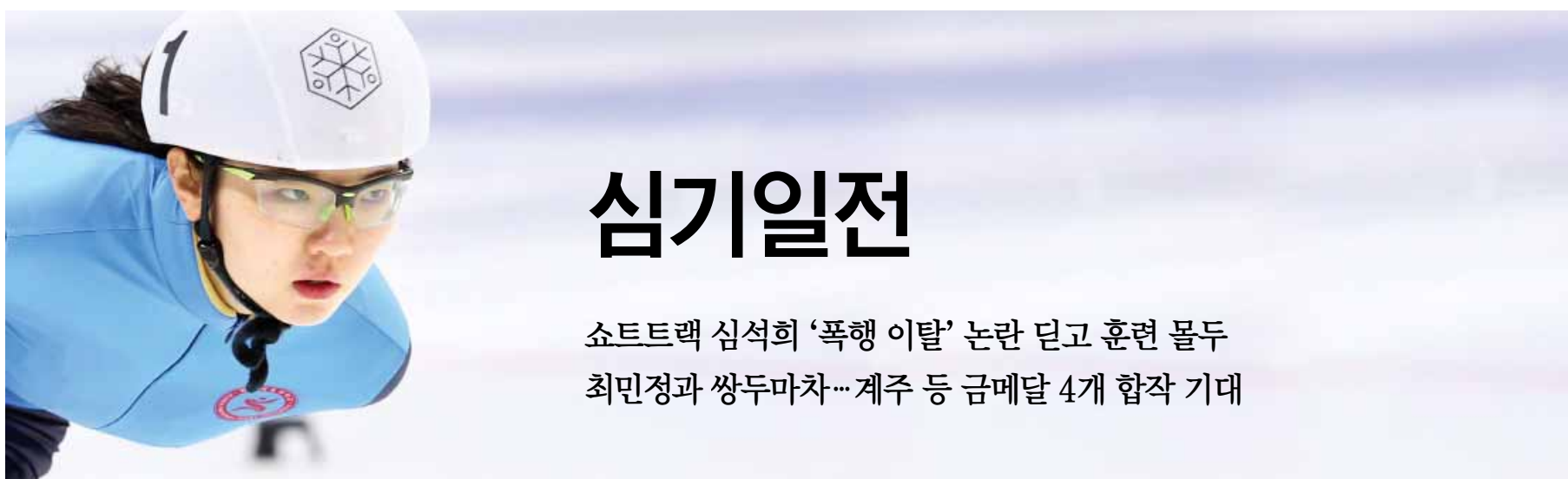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대한민국 선수 경기 일정

총합: 15개(107개 세부종목) 대한민국 선수: 143명

일	월	화	수	목	금	토
4 스피드스케이팅 이상화(29)	5 스피드스케이팅 심석희(21)	6 스피드스케이팅 윤성빈(24)	7 스피드스케이팅 이상화(29)	8 스피드스케이팅 이상화(29)	9 스피드스케이팅 이상화(29)	10 스피드스케이팅 이상화(29)
11 스피드스케이팅 이상화(29)	12 스피드스케이팅 이상화(29)	13 스피드스케이팅 이상화(29)	14 스피드스케이팅 이상화(29)	15 스피드스케이팅 이상화(29)	16 스피드스케이팅 이상화(29)	17 스피드스케이팅 이상화(29)
18 스피드스케이팅 이상화(29)	19 스피드스케이팅 이상화(29)	20 스피드스케이팅 이상화(29)	21 스피드스케이팅 이상화(29)	22 스피드스케이팅 이상화(29)	23 스피드스케이팅 이상화(29)	24 스피드스케이팅 이상화(29)
25 스피드스케이팅 이상화(29)	26 스피드스케이팅 이상화(29)	27 스피드스케이팅 이상화(29)	28 스피드스케이팅 이상화(29)	29 스피드스케이팅 이상화(29)	30 스피드스케이팅 이상화(29)	31 스피드스케이팅 이상화(29)



심기일전

쇼트트랙 심석희 '폭행 이탈' 논란 딛고 훈련 몰두
최민정과 쌍두마차...계주 등 금메달 4개 합작 기대



D-9

2018 평창동계올림픽 개막을 코앞에 두고 쇼트트랙 여자대표팀 코치로부터 손찌검을 당해 선수촌을 이탈했던 '쇼트트랙 여제' 심석희(21·한국체대·사진)가 혼란스러운 마음을 다잡고 '금빛 질주'를 준비하고 있다.

빙상 팬들은 지난 18일 씁쓸한 소식을 접했다. 여자 쇼트트랙 대표팀 주장 심석희가 코치로부터 폭행을 당해 선수촌을 이탈했다가 복귀했다는 뉴스였다.

심석희는 2014년 소치 동계올림픽 3,000m 계주 금메달을 비롯해 1,500m 은메달, 1,000m 동메달을 목에 걸면서 한국 여자 쇼트트랙의 간판스타로 떠올랐고,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유력한 금메달 후보로 손꼽히는 에이스다.

이런 심석희가 훈련에만 집중해도 모자랄 판에 코치로부터 손찌검을 당해 선수촌

대해 팬들은 공분했다.

결국, 대한빙상경기연맹은 해당 코치를 영구제명했고 심석희는 혼란스러운 마음을 진정하고 대표팀에 합류해 훈련에 몰두하고 있다.

심석희는 최민정(성남시청)과 함께 한국 여자 쇼트트랙의 '쌍두마차'로 금빛 사냥을 이끌 핵심 선수다.

우리나라 선수단이 이번 평창 대회에서 기대하는 금메달은 총 8개다.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을 남녀 쇼트트랙 대표팀이 책임져야 한다.

여자 쇼트트랙은 세계 최강 전력인 만큼 심석희와 최민정이 나란히 개인전에서 '금빛 수확'에 나서고 계주에서 우승을 이끌면 최대 4개 이상의 금메달도 점쳐볼 수 있다.

두 번째 올림픽에 도전하는 심석희는 7살 때 5살 많은 오빠를 따라 스케이트장을 찾았다가 쇼트트랙에 입문했다. 본격적으로 선수 생활을 시작한 심석희는 단숨에 유망주로 인정받았다.

오륜중에 재학 중이던 2012년 오스트리아에서 열린 동계 유스올림픽에서 2관왕을 차지한 심석희는 그해 호주 멜버른 세계주니어선수권대회에서 여자부 종합 우승을 따내면서 주목을 받았다. 시니어 무대에 첫선을 보인 2012~2013시즌 6차례

월드컵에서는 모두 금메달을 따내 동풍의 주인공이 됐고, 일찌감치 스타 탄생을 알렸다.

고등학교생 신분으로 처음 도전한 2014 소치 동계올림픽에서 심석희는 17살에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의 영광을 맛봤다.

심석희는 175cm의 큰 체구에서 나오는 강력한 파워와 빠른 스피드가 장점이다. 여기에 체력과 좋아서 아웃코스 통탄 추

월 능력 역시 강점이다.

이번 대회에서 심석희가 주의해야 할 점은 상대국의 몸싸움 견제다. 무엇보다 한국의 최대 '라이벌'로 꼽히는 중국이 요주의 대상이다.

심석희는 지난 24일 열린 평창 동계올림픽 결단식에 참석해 밝은 표정으로 동료들과 웃고 장난을 치고 기념 셀카도 찍는 등 활기를 되찾은 모습을 보여줬다. /연합뉴스



평창 온 바흐 IOC 위원장

토마스 바흐(맨 오른쪽)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장이 30일 오후 강원도 평창군 진부역에서 자원봉사단원의 환영을 받으며 활짝 웃고 있다. /연합뉴스

정현 '캡틴, 보고 있나'의 캡틴 김일순 감독

“열심히 하면 팀 해체 안된다 하니 챌린저 대회 우승하고 오더라고요”

‘캡틴, 보고 있나.’

호주오픈 테니스대회 16강전에서 정현(29위·한국체대)이 노바크 조코비치(13위·세르비아)를 꺾은 뒤 TV 중계 카메라 위에 적어 화제가 된 문구다.

정현은 당시 기자회견에서 “삼성증권 시절 김일순(사진) 감독님과 약속했다”며 “팀이 해체되고 감독님 마음고생이 심하셔서 이렇게나마 위로해드리고 싶었다”고 설명했다.

현재 경기도 시흥 Han 테니스 아카데미에서 유소년을 지도하고 있는 김일순(49) 감독은 “팀 해체 얘기가 나온 것이 (정)현이가 고3 때인 2014년이었다”고 회상하며 “그때 현이에게는 ‘우리가 잘하면 계속 갈 수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현이는 그걸 실제로 믿고 열심히 했다”고 돌아봤다.

그런데 마침 그해에 정현이 챌린저 대회에서 우승하는 등 좋은 성적을 내기 시작했다.

“현이가 ‘이 정도 하면 되나요’라고 물었다. 그래서 ‘아, 이걸로는 안돼. 적어도 그랜드 슬램 8강은 가야지’라고 지나가는 말로 돌려댔다.”

어쩌면 그때 그 이야기에 한국인 최초로 메이저 8강에 오른 정현이 카메라에 대고 김 감독에게 마치 ‘보셨죠, 이제 진짜 8강에 갔어요’라고 말하듯 사인을 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김 감독은 “그 이후에는 현이도 팀 해체를 받아들이고 사실을 다 알았지만, 처음에는 좋은 성적을 내면 다



시 모일 수 있다고 믿었다”고 털어놓으며 “물론 처음에는 다음 진로가 정해지지 않아서 어려운 상황이기도 했지만 서

로 신뢰가 있었고, 각자 위치에서 잘하고 있기 때문에 팀 해체에 대해서 그렇게 오래 답아두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김일순 전 감독은 1980년대 후반부터 한국 여자테니스 간판스타로 활약했다.

주니어 세계 랭킹 3위까지 올랐고, 1988년 서울올림픽에서는 당시 세계 랭킹 6위 헬레나 수코바(체코)를 물리치고 16강까지 올랐던 경력이 있다. 또 1986년과 1990년 아시안게임에서 은메달 5개를 획득하는 등 한국 여자 테니스를 대표하는 인물이었다.

김 감독이 정현을 처음 만난 것은 정현이 중3 때인 2011년이다.

그는 “가르치는 것을 워낙 빨리 받아들이고 변화 속도도 남달랐다. 어릴 때도 공을 치는 임팩트가 좋았고 영리한 경기 운영도 돋보이는 선수였다”며 “키가 170cm 정도라 작았는데 고1, 고2 그사이엔 15cm가 훌쩍 크면서 185cm를 넘었다. 스텝이나 스윙 쪽이 그렇게 매끄럽지는 않았지만 정신력이 좋은 선수라 평가를 받아들이고 변화하는 부분이 뛰어나다”고 평가했다.

/연합뉴스